

총학생회 보궐선거 시작... QR 투표로 부정 차단 나서 투표소마다 선관위원 상주, 현장 관리체계도 강화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서울】 오늘(30일)부터 사흘간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지난해 발생한 부정투표 재발 방지 대책으로 'QR 코드 활용'과 '현장 관리 체계 강화'를 준비했다.

QR 기반 투표 방식 도입 대리투표 원천 차단

무엇보다 기표소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본인인증을 받

은 뒤 NFC 투표카드를 지급받았다. 이후 기표소 내 인식 장치에 카드를 인식하고 설치된 공용 태블릿 PC를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선관위원이 부재할 시 선본원이 타인의 학번을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고 대리 투표하는 부정행위가 가능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기표소 내부에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QR코드만 비치된다. 유권자들은 각자의 전자기기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투표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역시 강화된다. 유권자들은 학번, 이름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외에도 휴대폰 인증, 온

라인 투표 진행 기기에 대한 인증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황희원(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중선관위원장은 "유권자들이 개별 전자기기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기에 대리투표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 업체는 지난해 선거(제58대) 시 이용했던 '한국전자투표(kevoting)'에서 제57대 선거 당시 이용했던 '오투웹스(O2Webs)'로 변경된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비용과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업체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장 관리 강화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현장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선거 기간 동안 각 기표소에는 선관위원이 상주하며 선본 측 참관인 활동을 감독한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선본 측 참관인은 투표 독려를 위해 기표소 근처에 배치되는데, 심의 받은 멘트만 할 수 있다"며 "그 외의 멘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선관위원들을 배치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추가로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선관위원 공백 상황에 대비한 실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했고 선관

위원 상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관위원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타 단과대의 중선관위·비상대책위원회측 실무위원을 투입해 감독이 끊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황 중선관위원장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학생 자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며 "우리학교 학생 자치가 발전하는 데 이번 선거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참여 자체가 학생 자치 발전에 기여한다"며 "중선관위 차원에서도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학우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총학생회칙 개정 총투표, 투표율 50% 미달로 2차 연장 31일까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생총투표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연장됐다. 연장투표는 오늘(30일), 내일(3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학생총투표는 사흘간 투표 진행 후 26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26일 투표 마감까지 투표율 50%를 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7일 하루 동안 국제캠 총학

생회 보궐선거와 함께 1차 연장투표가 시행됐다. 이마저도 투표율 42.28%로 50%를 넘지 못해 투표 기간이 2차 연장됐다. 박병준(국제학 2017) 중앙선거관리위원장(중선관위장) 및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총학생회나 기타 학생회 투표가지만 진행하고 있어서 나오는 학생총투표에 대한 투표는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총투표는 총학생회칙 제14차 개정안에 대한 투표로 ▲자

유전공학부(자전)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재정운용세칙 관련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전 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에 준하는 지위·권한을 공식 인정받게 되며 선거 시기와 임기를 명시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자전은 지난해 신설돼 학생대표자를 자체 선출했지만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중운위 참여가 불가능했다. (관련기사: 자유전공

학부 학생회 확운위 인준돼, 중운위는 참여 불가/대학주보 1740호/2025.04.14.)

박 비대위원장은 관련 학칙 개정에 관해 "학부 특수성을 인정해 중운위 성원으로 인정 가능한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대위 설립위원회 신설·위원 구성에 대한 회칙이 명시되며 비대위장 호선 절차도 개정된다. 외부 제휴·후원·기부금을 공적 재원으로 명시하는 조항 역시 신설된다.

총학생회칙 개정안 요약	
2025년도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총투표 이후 선거일 당일 선거 개시 후 투표 종료 시점 총학생회칙 개정안 반영됩니다.	
자유전공학부 관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위·권한: 단과대학 학생회에 준하는 지위·권한 공식 인정 선거 시기: 제1차 3월 보궐선거 기간에 실시 (다중 투표 제외 적용) 임기 명시: 임기 확정일까지 다음 재 선거 시까지 연임까지 비대위장: 자유전공학부 전용 재외 조항 신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관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정방법: 선거 후인 시 24시간 이내 비대위 설립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제1차 3월 총투표 재외 / 재 선거 시 별도 호선 절차 명시 비대위장 호선: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후인 / 호 선거 시 별도 호선 절차 적용으로 호선 가능
재정운용세칙 관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금 명목: 외부 제휴·후원·기부금 등 공적 재원으로 명시 투표권자 범위: 최종 의사 결정 시 사용 권리, 재계약 금지에 관한 조항 명목 사용: 재외투표 명목 사용 시 별도 근거 마련

총학생회칙 개정 총투표 연장투표가 내일까지 진행된다. (사진=투표 안내화면 캡처)



대학주보 YOUTUBE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KHUNNEWS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구독하기

